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희망을 잇다, 삶을 잇다. 주거복지로드맵		배포일시	2018. 3. 12.(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기획담당관	담 당 자	• 과장 강주엽, 사무관 위은환, 주무관 박성채 • ☎(044)201-3203, 3208	
보 도 일 시		2018년 3. 13.(화) 15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청년 일자리, 소통에서 답을 구하다

**김현미 장관, 청년들과 토크콘서트 ‘청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’ 개최
공감정책 발굴해 4월 「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」에 반영**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‘일자리 고민’을 나누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.

○ 국토교통부는 3월 13일 신촌 ‘르호봇 G 캠퍼스’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토론하는 “국토교통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”를 개최했다.

*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, 누구나 시청 가능

□ 이번 콘서트는 청년 실업이라는 우리시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제안을 귀담아 듣고 향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청년 실업률(15~29세) : ('11) 7.6% ('13) 8.0% ('15) 9.2% ('17) 9.9%

○ 국토교통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,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 약 30명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기업·창업·교육훈련 분야 전문가 10여명도 함께 패널로 참여하여, 일자리 미스매치, 창업, 교육훈련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.

- 토론에 참석한 청년들은 “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열악하다”, “주말 보장이 어렵고 업무강도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다”, “기업에서 여성을 선호하지 않고 채용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 공정한 채용이 필요하다”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.
- 창업지원과 신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. “안정적인 청년 창업 공간이 필요하고 창작 공간과 결합한 맞춤형 주거공간도 제공되면 좋겠다”, “스마트시티 등 스타트업에 맞는 인증체계와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”, “제로에너지 건축, 드론과 같은 신산업 지원을 강화해야한다”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.
- 취업을 앞두고 있는 고교·대학생들은 “방학 중 해외 건설현장 방문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”, “기업과 학교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확대되고, 프로그램의 질도 좋아져야 한다”, “물류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IOT 등 최신기술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” 등 교육·체험기회 확대, 인력양성 사업의 내실화 등을 건의했다.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취업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, 청년들의 열정과 희망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도 든든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”며,
 - “오늘 청년들과 나눈 소중한 대화는 오는 4월 마련되는 「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」에 반영하여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”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위은환 사무관(☎ 044-201-320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